

한국판 Cell 꿈 ... 대표 학술지 66개 첫 선정

(세계 최고 생명과학 학술지)

교수·박사 등 2만여 명 대상
구독·활용·평판·선호도 조사
5634개 중 절반 선택 못 받아
교과부 “부실 학술지 거를 것”

국내 5634개 학술지 중 한국을 대표
하는 우수 학술지 66개가 선정됐다.
전체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는 교육과학
기술부 자문기구인 학술진흥정책자
문위원회가 맡았다.

14일 본지가 입수한 자문위의
‘우리나라 학자들의 학술지 선호
도 조사’에 따르면 전자공학회는문
지 등 66개가 대표 학술지로 꼽혔
다. 자문위는 한국연구재단에 등
록된 교수 등 연구자 16만 명(응답
자 2만294명)을 대상으로 친숙도
(구독)·활용도·평판도·선호도(부
고 의향) 등 4개 분야별로 최대 10
개씩(선호도는 5개) 학술지를 선택
하도록 했다. 이 중 모든 분야에서

100명 이상이 꼽은 66개를 한국판
Cell(생명과학 분야 세계 최고 권
위의 학술지)을 꼽는 ‘대표 학술
지’로 선정했다.

4개 분야를 합해 1000명 이상이
선택한 학술지는 8개였다. 1위는 전
자공학회는문지(1969명)였다. 1974
년부터 대한전자공학회가 발행해
온 이 학술지는 전자공학뿐 아니라
수학과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로 창립 68주년
을 맞는 대한전자공학회는 세계적인
IT 학회로, 여기서 발간되는 반도체
분야 영문논문지(JSTS: Journal of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Science)는 2011년 과학기술논문 인
용색인(SCI)에 등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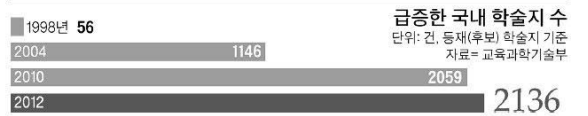
2위는 1869명이 응답한 대한건축
학회논문집(대한건축학회)이다. 이
학술지는 논문 심사 과정이 간단하기
로 유명하다. 매달 35~40편기량이 접
수돼 20여 편의 논문이 실리는데 전
체 심사위원만 150명이다. 이 중 30여
명씩 돌아가며 매달 논문 심사를 맡

는다. 심사에 통과해도 논문이 실리
기까지 보통 3~4개월이 걸린다.

대표 학술지 66개 중 26개(39.4%)
는 대형 학회(회원 수 1만 명 이상)
학술지였다. 전체 학술지 중 대형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는 145개
(2.6%)다. 반면에 학술지 중 절반 정
도(2438개)는 설문 대상 연구자로부터
단 한 번의 응답도 받지 못했다.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군소 학
술지가 난립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학술지 난립에 따른 옥석(玉石) 가
리기도 과제다. 그동안 정부는 등재
(후보)지로 선정된 학술지에 대해서
만 일률적인 재정지원을 했다. 하지
만 연구 업적을 높이기 위해 부실 논
문을 신거나 심사를 엉터리로 하는
등 부실 학술지 문제가 제기됐다. 교
과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는 학술
지 등재(후보) 제도를 폐지하고 이번
조사에서처럼 우수 학술지와 부실
학술지가 학계 자율평가를 통해 드
러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급증한 국내 학술지 수
단위: 권, 등재(후보) 학술지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대표 학술지 66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진흥정책자문위원회	
학술지명(학회)	점수	학술지명(학회)	점수
전자공학회는문지(대한전자공학회)	1969	디자인학연구(한국디자인학회)	546
대한건축학회논문집(대한건축학회)	1869	콘크리트학회논문집(한국콘크리트학회)	537
한국통신회논문지(한국통신학회)	1580	한국식품과학회지(한국식품과학회)	536
대한토목학회논문집(대한토목학회)	1227	교육학연구(한국교육학회)	534
한국체육학회지(한국체육학회)	1175	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한국정보과학회)	532
경영학연구(한국경영학회)	1149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실리치료(한국상담심리학회)	518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B, C, D(한국정보처리학회)	1103	중어중문학(한국중어중문학회)	517
대한기계학회논문집A(대한기계학회)	1022	회계학연구(한국회계학회)	516
대한금속·재료학회지(대한금속·재료학회)	981	한국설계디자인학회논문집(한국설계디자인학회)	510
국토계획(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937	한국정책학회보(한국정책학회)	495
대한기계학회논문집B(대한기계학회)	898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한국멀티미디어학회)	493
한국정밀공학회지(한국정밀공학회)	893	유아교육연구(한국유아교육학회)	485
한국사회복지학(한국사회복지학회)	831	한국의류학회지(한국의류학회)	480
대한기계학회영문논문집(대한기계학회)	769	대한산업공학회지(대한산업공학회)	479
한국행정학회보(한국행정학회)	751	한국전자과학회논문지(한국전자과학회)	474
한국자동차공학회는문집(한국자동차공학회)	745	한국조각학회논문집(한국조각학회)	474
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응용(한국정보과학회)	742	영어교육(한국영어교육학회)	47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한국콘텐츠학회)	714	한국방재학회논문집(한국방재학회)	470
기초조형학연구(한국기초조형학회)	713	한국조경학회지(한국조경학회)	467
한국사회체육학회지(한국사회체육학회)	694	한국표면공학회지(한국표면공학회)	465
한국정치학회보(한국정치학회)	688	소성기공(한국소성기공학회)	463
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한국정보과학회)	687	철학(한국철학회)	461
관광학연구(한국관광학회)	662	국제정치논총(한국국제정치학회)	457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	656	대한환경공학회지(대한환경공학회)	456
전기학회는문지(대한전기학회)	638	광고학연구(한국광고학회)	451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한국정보통신학회)	630	한국세라믹학회지(한국세라믹학회)	451
한국재료학회지(한국재료학회)	605	응용통계연구(한국통계학회)	448
특수교육학연구(한국특수교육학회)	598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한국자료분석학회)	446
한국기독교신학논총(한국기독교학회)	591	영어영문학(한국영어영문학회)	445
대한가정학회지(대한가정학회)	562	번역학연구(한국번역학회)	440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한국컴퓨터정보학회)	561	대한안진경영과학회지(대한안진경영과학회)	438
한국신학기술학회논문지(한국신학기술학회)	547	새물리(한국물리학회)	431
		대한영상의학학회지(대한영상의학학회)	412
		한국음향학회지(한국음향학회)	412

※점수는 해당 기준에 응답한 연구자의 수
※친숙도·활용도·평판도·선호도 응답 수 가 모두
100 이상인 학술지 선정

◆**등재·등재후보지**-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 학술지 발행 횟수, 논문 게재율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 등재후보지로 인정한다. 등재후보지 자격이 2년 이상 유지되면 등재지로 격상된다.

“논문 수로만 교수 평가, 학술지 난립 키웠다”

왕상한 학술진흥정책위원장

“겨우 교수 8명이 모여 학회를 만들고, 12명이 학술지를 발간하는 꼴이니 ‘학술지 난립’이란 얘기가 나오지요. 이런 폐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인 학술진흥정책자문위원회 왕상한(서강대 교수·사진) 위원장은 14일 “교수들이 논문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함량 미달 논문을 쪼개 여러 학술지에 나눠 싣는 등 학술지 난립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학술지의 실태는 어떤가.

“교수 6만8577명에 학술지 5634개,



작해 허접한 학술지를 등재지로 둔갑 시킨 뒤 정부 지원을 타내기도 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정부가 교수 업적을 평가하면서 논문의 질보다 학술지에 실린 편수를 기준으로 삼은 탓이 크다. 15년 전 56개였던 등재(후보)지가 지난해 2136개로 늘어나는 등 학술지가 우

학술단체 7870 곳이다. 교수들이 끼리끼리 모여 중복 학회를 만들고 학술지를 발행한다. 논문 탈락률을 조

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등재지가 되면 똑같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니 질과는 상관없이 학술지 만들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교수들의 비양심도 문제인데.

“1년에 논문을 30편 넘게 발표하는 교수도 있다. 그런 교수가 쓴 논문의 질이 어떻겠는가.”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단순히 논문 편수로 교수 업적을 평가하는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 논문의 질 관리가 우선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처럼 학계의 평가를 통해 우수 학술지와 그렇지 않은 학술지가 가려져야 한다.”

윤석만 기자